

한국 지리교과서 속에 나타난 프랑스의 국가이미지

최희* · 이상균**

The National Image of France Expressed in the Korean Geography Textbooks

Hee Choi* · Saangkyun Yi**

요약 : 교과서에 기술된 타국에 관한 편향된 내용과 서술은 학생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교과서에 기술된 특정 국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는 연구는 향후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분단 이후 남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그 차이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개화기 교과서에는 프랑스를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일제강점기에는 프랑스를 당시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독일에 비해 비호의적이면서도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해방 이후,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기술되었으며, 그리고 프랑스의 공업화와 산업화에 관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반영되었다. 최근에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춰 프랑스의 사회문제 등 주제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 속에 프랑스는 여전히 제국주의와 냉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어 : 지리교과서, 세계지리, 프랑스, 제국주의, 냉전, 국가이미지

Abstract : Slanted contents and descriptions about other countries in textbooks can make students have fixed ideas and prejudices. Research for reviewing the contents about a certain country in the existing textbooks is essential to development of a balanced textb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expression of the national image of France, as reflected in the North and South Korean geography textbooks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fter the national division. While the textbooks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gave relatively detailed and objective description of France, tho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gave more unfavorable and shorter description of the country than of Germany that was an ally to Japan at that time. The Korean geography textbooks after the Liberation had description of France as the country with the most highly developed type of agriculture, followed by the contents about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 Recently, as the South Korean society becomes multi-cultural society, the textbooks deal with diversified themes, including social issues of France. In contrast, the North Korean textbooks still describe France in the perspective of imperialism and Cold War.

Key Words : South and North Korea's Geographic textbooks, World geography, France, Imperialism, Cold war, National image

I. 서론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일제강점기 35년을 제외하고는 종교를 시작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과 과학기술 등 다 방면에서 걸쳐 협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프랑스는 우리에게 친숙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전공 박사수료(Ph.D. Candidate,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eksms06@naver.com)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kyigeo@gmail.com)

하고 교과서에도 비중 있게 다루지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¹⁾ 프랑스에 관한 내용이 한국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미국인 선교사 험버트로부터 시작되었다. 험버트는 한국 학생들이 세계지리 학습을 통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여 더 넓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하기 위해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국어 버전으로 발행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35년간 식민통치를 받은 이후, 다시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서방 국가 중 예 프랑스는 현재까지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수교하지 않은 북한의 지리교과서와 활발한 교류 관계에 있는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프랑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교육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실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술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스테레오타입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박선미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에 기술된 타국에 관한 편향된 내용과 서술이 학생들로 하여금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선미 · 우선영, 2009:20). 특히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나 텍스트 자료는 학생들에게 특정 이미지를 갖게 하는 주된 요소이다. 오늘날 한국 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세계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 교과서를 포함하여 우리의 교과서에 기술된 특정 국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프랑스는 한국의 지리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학교교육에 반영된 프랑스에 관한 내용은 학생들이 갖는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프랑스 관련 연구는 주로 역사교과서 및 프랑스어 교과서 분석(서숙희, 2011; 이송, 2014; 송정희, 2003; 김형래 · 김희경, 2004; 김형래, 2000; 하경수, 2006 등)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프랑스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리교육이 처음으로 등장한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그리고 해방 이후 남북한 지리교과서에 프랑스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다르게 반영되

었는지 그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게 표출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연구는 대륙별 · 국가별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이지만,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한 국가에서 특정 국가에 관하여 가르쳐진 교과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분단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 19세기 후반, 근대학교의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프랑스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개화기에 등장한 세계지리 교과서는 한글로 집필된 「사민필지(士民必知)」(1891) 외에도, 한문으로 집필된 오형목의 「여재촬요(輿載撮要)」(1894)와 국한문 혼용의 「소학만국지(小學萬國地誌)」(1895) 등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민필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일제강점기 동안에 식민지 한국에서 가르쳐진 지리교과서에 프랑스는 어떠한 이미지로 기술되었는가? 셋째, 해방이후 남북한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프랑스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이 연구는 개화기의 세계지리 교과서 「사민필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초등지리」, 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 한국의 세계지리 교과서 등을 대상으로 학습내용의 분량에 관한 양적인 분석, 학습내용의 구성방식, 프랑스를 바라보는 관점 등의 측면에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프랑스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이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상호이해와 학교교육의 비교연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연구 결과는 남북한을 바라보는 프랑스 정부나 프랑스 교육계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19세기 후반, 한국에 소개된 프랑스

조선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1891년에 출판된 험버트(H. B. Hulbert)의 「사민필지(士民必知)」이다. 정부는 1884년, 미국공사에 젊은 교사 3인을 주선해 주길 청하였고, 그 결과, 1886년에 미국정부의 추천으로 미국인 교사 3인(G. W. Gilmore, D. A. Bunker, H. B. Hulbert)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1886년에 옛 한국정부가 설립한 육영공원에서 영어 · 자연과학 · 수학 · 경제 · 지리 등이 가르쳐졌는데, 그 당시 이 학교의 교사였던 험버트²⁾에 의하면,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지리였던 것으

로 파악된다. 예컨대, 학생들은 지구의의를 둘러보거나 지도책을 펴보고는 세계가 너무나도 넓은 것에 놀라워했으며, 또한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서양 사정과 천문 및 증기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했다. 특히, 학생들은 세계지리를 배우면서 눈을 크게 뜨게 되었고, 대조선(大朝鮮)의 [大]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세계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 접촉이 없었던 국민 전체가 경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이찬, 1968:730). 당시의 세계정세는 험버트의 「사민필지」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정세가 이전과 많이 달라서 전에는 각국이 자기 나라만 지키고 자기네 풍속만을 따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천하만국이 서로 언약을 맺고, 사람과 물건과 풍속이 서로 통하기를 마치 한 집안 같으니, 이는 지금 천하 형세의 고치지 못할 일이다. 이런 세계정세 가운데 각국이 이전처럼 자기 나라에 대해서만 공부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풍기(문화)를 어찌 알며, 알지 못하면서 서로 교섭하는 사이에 마땅치 못함과 인정을 통함에 거리낌이 있을 것이오. 거리낌이 있으면 서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불가불 이전에 공부하던 학업 외에 또 각국 이름과 지방과 면적과 산천과 소산(생산물)과 국경과 국세와 국제와 군사와 풍속과 학업과 도학의 어려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누구든 일고여덟 살이 되면 먼저 세계 지도와 각 나라 풍속을 배운 후 다른 공부를 시작해서 천하의 산천수륙과 각국 풍속,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게 한다.(험버트, 1891)

「사민필지」는 최초의 근대 지리교과서였으며, 험버트는 “모든 사람에게 빨리 읽히고 알게 하기 위하여 국문으로 썼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각국에 관한 지리 지식을 왜곡되지 않게 저술하여 외부세계와 접촉이 없었던 조선의 학생들에게 읽게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었다. 사민필지의 목차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 (2) 유로바주(유럽대륙), (3) 아시아주, (4) 아메리카주, (5) 아프리카주, 오세아니아주 등. 각 장마다 주(state) 전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학습내용은 태양계, 지구의 위치, 기후, 인력, 일식과 월식, 대륙과 해양, 인종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각국에 관한 지지(지리정보)는 위치·지형·면적·기후·산업·인구·국제·도성·통상·교육·종교·문는 말

(질문) 등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유럽을 설명하기에 앞서, 유럽지도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19개 국가³⁾의 판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8번째로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먼저 위치와 면적을 설명하고, 이어서 지형·기후·소산·수효·국제·도시·외국통상·국제·국제·교육·군사·종교, 마지막으로 얻은 땅(식민지)에 대한 소개로 끝난다. 프랑스에 관한 내용은 4페이지 정도이며,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를 말하면, 고르되 조선보다 더우며, 소산을 말하면 초목은 감람나무, 참나무, 뿔나무, 소나무, 느릅나무, 밤나무, 굴피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능금나무, 배나무, 유자나무, 무화과나무, 오얏나무, 뽕나무며 포도나무가 천하에 제일로 많고, 짐승은 산염소와 산양과 여호와 토끼와 말과 소와 돼지요. 오리와 거위며, 닭은 천하에 제일로 많고, 온갖 생선과 전복이 많고, 또 누에가 많으며, 곡식은 밀과 보리와 쌀, 귀리와 감자와 사탕수수이며... (험버트, 1891:38-39)

프랑스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면, 3,800만 명의 인구에 자기 나라 언어가 있어 오래전부터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20년 전까지만 하여도 임금이 존재하였으나, 백성들이 주장하며 다스리는 국가 체계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프랑스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후, 교육에 관한 소개가 있다. 예컨대, ‘학업을 말하면, 대단히 힘써 모든 학당을 맡아 다스리는 높은 관원이 있고, 초등 학당이 6만 5천인데, 그 가운데 4만 5천이 사내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당이고, 2만은 계집아이를 가르치는 학당’이라며 학문의 중요성을 말해주듯, ‘공부 아니 하는 이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프랑스는 남·여 학교가 따로 있었으며, 교육과 학문을 장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국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특별히 높은 공부학당이 아홉이오’라는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프랑스는 외국과의 경제 및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이어서 국방에 관해, 50만 군사와 388척의 화륜선 중에 철갑화륜선이 41척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17-18세부터 30세까지는 이삼년을 군사노릇 아니하는 이가 없다’와 같이 당시 2-3년 동안의 군복무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동남아⁴⁾에 진출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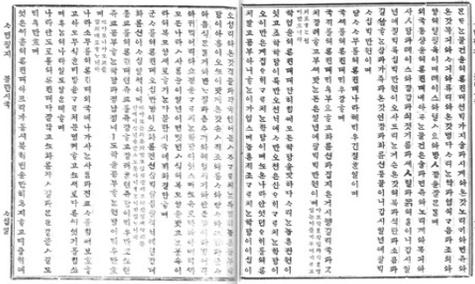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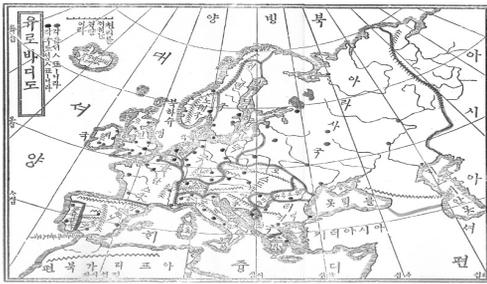


그림 1. 「사민필지」에 수록된 유럽지도와 프랑스 관련 내용

출처 : 헐버트, 1891:13.

르고 있었으며, 때문에 프랑스인의 군복무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관련 내용으로는 ‘천주교를 장려하는 천주당이 매우 많고 또 천주교를 공부하는 학당이 매우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나라소’(오늘날의 대사관)에서 하는 일을 말하면,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과 전교사(선교사)를 힘써 보호하고, 무식한 지방을 가르쳐 문명케 하고, 또 새로운 땅 얻기를 힘쓰며, 혹 남의 나라일도 간섭한다. 프랑스가 ‘얻은 땅’에 관한 내용은 ‘아프리카 동서북 해변을 많이 차지하고 지중해에 커시가(코르시카) 탄섬과 아시아에 안남국(베트남)과 남북아메리카 땅의 여러 섬과 남아메리카 북해변의 여러 지방을 다 차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민필지」는 당시 학생들에게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세계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매체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민필지」 내용 중에 질문과 지도가 포함되었던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며, 이 책의 구성방식은 그 이후 세대에 집필되는 지리교과서의 좋은 사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II. 일제강점기, 식민지 한국에서 가르쳐진 프랑스

1.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

일제강점기(1910-1945)의 대한반도 교육정책은 크게 4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22년까지로 이때는 총독부에서 제정 공포한 조선교육령에

의해 식민지 교육을 시행하던 시기이다. 지리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리교과가 민족정신을 고취한다고 여기고, 보통학교(초등학교) 정식과목이었던 지리를 교육과정에서 배제하고 지리를 가르치지 않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22년에서 1938년까지에 해당하며, 개정된 교육령에 의해 지리가 교육과정에 새롭게 포함되었던 때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38년 3월부터 1943년 3월까지이며, 일본어와 일본사를 더 강조하고, 조선어는 금하였던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43년부터 1945년 8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소위 대동아 전쟁(태평양전쟁)을 수행하던 때이므로 교육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군국주의적 색채가 짙은 교육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지리교육 또한 일제의 팽창주의와 군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개화기(1880-1905)에는 조선 정부의 주도하에 근대 교육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을사늑약(1905) 이후, 통감부는 식민통치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908년에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하고, 교과서 편찬과정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검정 절차를 통해 민간인이 저술한 각종 지리교과용 도서를 검정불허 및 무효화하여 「사민필지」(1891), 「소학만국지지」(1895), 「대한신지지」(1907) 등 개화기 무렵에 편찬된 대부분의 지리 교과서들은 사라지게 되었다⁵⁾.

1906년에 공포된 보통학교(초등학교)령 시행규칙(관보: 광무 10(1906)년 8월 27일 학부령 제23호)에 따르면, 그때 이미 교육과정에서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국어독본(국어 읽기 책, 한일합방(1910) 이후 「국어독본」은 일본어로 되었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였다. 한일합방(1910) 이후에도 보통학교 규칙에 의하면, 보통학교 교육과정에 지

리 및 역사 과목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다만 국어독본 교재에 포함된 지리와 역사에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초기에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지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11년, 일본은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예컨대, 영토적으로는 '内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일본의 영토가 조선반도까지 연장되었다는 것)'를 내세우고, 정신적으로는 한국의 문화를 말살함으로써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려는 식민정책을 취하였던 것이다. 한일합방(1910) 이후에 「국어독본」은 일본어로 되어 있었다. 식민지 교육정책으로는 조선교육령 제2조에 따라 한국인의 '皇國臣民化(황국신민화)'를 내세웠다. 당시 일제 당국에 의해 제시된 소위 「教員心得(교원심득 → 교사가 알아야 할 지침)」이라는 지침을 보면, '황국신민화를 위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언제나 국민교육의 큰 뜻을 염두에 두고,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유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충효를 근본으로 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제국신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인물을 양성하고, 둘째, 실용 위주의 지식과 기능을 알게 함으로써 국가의 요청에 응하는 인물을 기르며, 셋째, 국가의 부강도 강한 국민의 노력에 달린 것이므로 건강한 신체를 육성하여 국가의 진취적인 운명에 공헌하는 국민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1919년 12월, 일제 당국은 요동치는 한국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일부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1920년 11

월에 또다시 교육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4년의 초등학교 교육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역사와 지리 교과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적인 차별대우에 대한 조선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1922년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리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식교과로 채택되어 처음에는 일본 문부성(교육부)에서 발행한 「심상소학지리서」를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다가 차후에는 총독부가 발행한 「보통학교 지리보충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32년과 1933년에는 「초등지리 (1), (2)」가 발행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지리교육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7년에 중일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조선은 병참기지로 전락하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전면적 전시체제에 들어갔다. 일제의 한 지방으로 편입된 조선반도는 병참 기지가 되었으며, 조선의 노동력은 강제동원 되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3)의 공포는 한민족의 문화말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어와 일본사를 더 강조하고,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1938년과 1941년에는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명칭을 일본 본토의 명칭과 동일하게 바꾸는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이 시기(태평양전쟁)에 편찬된 지리교과서에는 일본이 일본제국의 중심, 더 나아가 대동아와 세계의 중심이라는 관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으며, 일제의 팽창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림 2는 당시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일제의 팽창주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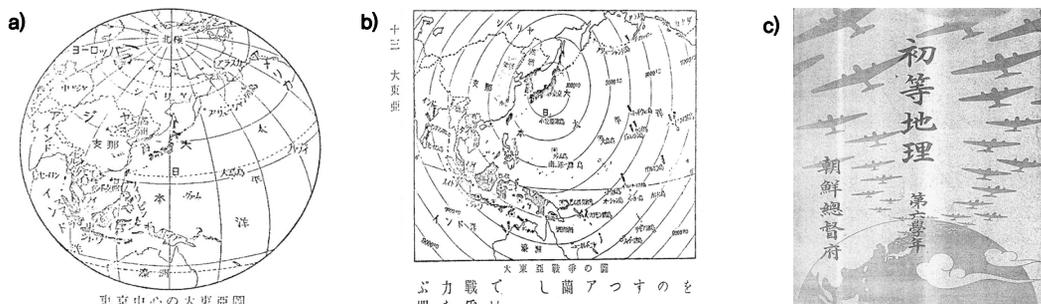


그림 2. 일제강점기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일제의 팽창주의 정책

* a) 동경중심의 대동아지도(초등지리5), b) 대동아전쟁 지도(초등지리 5), c) 초등지리6 교과서 표지 출처 : 朝鮮總督府, 1944:139.

초등지리 6학년(1944) 교과서 표지에는 일본에서 출격한 폭격기가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초등지리 5학년(1944) 교과서에는 동경중심의 세계관을 심어주 「동경중심의 대동아시아도」, 그리고 같은 교과서에는 「대동아전쟁지도」를 통해 당시 일제의 침략전쟁 상황과 그들이 획득한 해외 영토의 판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2. 일제 강점기 지리교과서 속의 프랑스

이 절에서는 「초등지리서 권2」(1933; 1944)를 토대로 교과서속의 프랑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총독부에서 1932년에 「초등지리서 권1」과 이어서 1933년에 「초등지리서 권2」를 발행하였다. 「초등지리서 권1」(1932)은 일본과 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지리서 권2」(1933)는 일본지리와 세계지리 내용을 다룬다.

세계지리내용(「초등지리서 권2」, 1933)은 대양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남반구의 3대륙을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다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양주에 속하는 호주 대륙의 경우, 지형, 기후, 식물대, 인문 등에 관한 내용을 간명하게 제시하는 등 외국지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반구에 관한 내용을 다룬 후에는 북반구의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대륙의 순서로 학습내용을 구성한다.

프랑스에 관한 내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지고 있다(표 1). 1933년판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주에 속한 프랑스는 '다른 대륙에 넓은 영지를 갖고 있다'는 교과서 서술과 같이, 동남아에서 식민지를 확장하던 시기의 프랑스에 관한 설명을 통해 당시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망과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프랑스의 농업과 공업에 대하여서도 자세하게 다루었고, 프랑스의 온화한 기후는 비옥한 경작에 좋은 환경으로 작용함으로써 산업이 발달되고, 농산물 제조업(가공업)도 발달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는 일찍이 항구가 발달하여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1944년에 발행된 「초등지리서 권2」 교과서에서는 프랑스에 관한 내용이 아주 소략하게 다루지고 있다. 1940년대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집중하던 시기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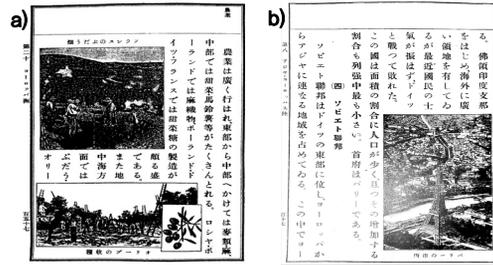


그림 3. 교과서 속의 프랑스

출처 : a) 朝鮮總督府, 1933:157; b) 朝鮮總督府, 1944:117.

당시 일본은 독일과 동맹관계에 있던 시기로서, 독일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관점에서 2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는 반면, 프랑스에 관한 내용은 비호의적이면서도 아주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그림 3). 프랑스에 관한 내용은 에펠탑 사진을 포함하여 1페이지도 되지 않는 분량이다. 교과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당시 유럽에서 새로 영토를 획득한 독일은 유럽대륙에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그 영향을 받은 일본은 일본중심의 세계관을 확립시키면서 그들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세계지리 교과서의 마지막 주제는 '세계와 일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세계 속의 강한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식민지 학생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IV. 남북한 지리교과서 속의 프랑스

1. 한국 지리교과서 속의 프랑스

한국의 중학교 1학년 사회과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교과이며, 중1 사회 교과서에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의 세계지리 과목은 선택과정에 분류됨에 따라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이 배우게 된다(손용택, 2004). 그러나 북한에서 지리교육은 조선지리와 세계지리로 나뉘는데, 모두 필수과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고등중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지리를 배운다. 이 장에서는 해방이후(1945-1950) 발행된 「세계지리」(최복현 등, 1950, 최신 먼나라 지리)와, 1960년대-1970년대의 고등학교 「세계지리」(최흥준, 1968), 1989년대의 고등학교 「세계지리」

표 1. 「초등지리서 권2(1933, 1944) 속의 프랑스관련 내용

년도	프랑스 관련 내용
초등 지리서 권2 (1933)	〈남동아시아 中〉 이 지방은 태국 이외에는 프랑스 ·영국·네덜란드·아메리카 합중국 등의 영지이다(p.148).
	〈유럽주 中〉 본 주는 러시아·독일· 프랑스 ·영국·이탈리아 등 크고 작은 30여 개 국으로 나뉘어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세계의 주요국으로 다른 대륙에 넓은 영지를 갖고 있다(p.154).
	농업은 넓게 퍼져 동부에서 중부에 걸쳐 맥류(麥類)·삼(麻), 중부에서는 사탕무(甜菜)·감자 등이 많이 수확된다. … 폴란드·독일· 프랑스 에서는 설탕(甜菜糖)의 제조가 매우 번성한다. 또 지중해 방면에서는 포도·올리브·레몬 등의 재배가 번성한다.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포도주가 많이 제조 된다(p.157).
	중부에서 서부에 걸쳐서는 철광·석탄이 풍부하다. 특히 영국·독일에서는 석탄, 프랑스 ·영국·독일에서는 철광의 산출량이 많아 모두 세계의 중요한 산지이다(p.159).
	영국의 런던·리버풀, 독일의 함부르크, 프랑스 의 마르세유는 모두 세계에서 이름 높은 항구로 세계 명지의 각 항구와 항로가 연결되어 배의 출입이 많다. … 수상교통의 발달, 조계업의 진보와 함께 본 대륙 각국의 선박은 점점 수가 증가하였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독일·노르웨이는 모두 세계의 해운업에 있어서 우세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p.162). 프랑스 는 해외에 넓은 영지를 가지며, 본국과 그 영지를 합치면 면적의 크기로는 세계의 제 3위로, 영국·러시아의 뒤를 잇는다. 기후는 일반적으로 온화하고 남부의 지중해 연안 지방은 특히 온화하다. 기후가 좋고, 토질이 비옥한 경작지가 많으므로 산업이 발달하고, 밀·포도 등의 산출이 많고 포도주의 제조가 발달되었다. 또한 석탄·철의 산업이 많으므로 공업도 발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견직물은 유명하지만, 그 원료는 주로 우리나라(일본)와 중국(支那)에서 수입된다(p.166).
〈우리나라와의 관계〉 유럽제국 중에 우리나라(일본)와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20여 개 국이나 있다. 그 중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독일·러시아·벨기에 등의 제국에는 대사관을 두고, 그 외의 조약국에는 대부분 공사관을 두고 있다. …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벨기에·네덜란드·독일의 주요한 항구에는 유럽 항로가 통하고 있어 무역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일본)의 무역에서 주요한 거래망으로 우리나라(일본)로 부터 수출하는 것은 명주실(生絲)과 견직물이 주를 이룬다(p.174).	
초등지리서 권2(1944)	프랑스 는 독일·이탈리아의 서부에 있는 나라이다. 불령(프랑스령) 인도(印度) 시나(支那) → 인도차이나 반도를 시작으로, 해외에 넓은(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국민의 사기가 낮아 독일과 싸워 패했다. 이 나라는 면적의 비율에 인구가 적고, 증가하는 비율도 열강 중에 가장 낮다. 수도는 파리이다(p.116).

출처 : 朝鮮總督府, 1933:148-174; 朝鮮總督府, 1944:116.

(주경식 등, 1989), 1995년 고등학교 「세계지리」(형기주 등, 1995), 2002년 고등학교 「세계지리」(오기세 등, 2002), 2011년도 고등학교 「세계지리」(권동희 등, 2011) 교과서에 포함된 프랑스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표 2).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되고, 정치사회적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수립의 과도기를 거친다. 한반도의 남쪽은 미군정에 의해, 북쪽은 소련군정의 통치를 받게 되며,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된다. 해방 후, 한국의 지리 교육과정은 「이웃 나라」(아시아 지리)→「먼 나라」(세계지리)→「우리나라」 순으로 조직되었으며, 내용면에서는 세계와 다른 민족들의 생활을 이해한 다음,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과 각 지역

의 생활을 학습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형성과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정갑, 1949). “이웃 나라”는 세계지리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먼 나라」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지역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나라」에서 유럽주는 서유럽 → 중부유럽 → 북유럽 → 동유럽 → 남유럽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1장 서유럽에서 영국다음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으며, 내용 전개방식을 보면, 자연 → 인문 → 교통 → 도시 → 주민 순으로 다루고 있다(표 3). 프랑스의 농업경제, 발달된 도시와 교통은 7개의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 정부의 주된 관심사였던 도시화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가 교과서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표 2. 시기별 세계지리 학습내용

시기	학습내용	
먼나라 지리 (1950)	I. 서부유럽 여러 나라의 생활 II. 중부유럽 여러 나라의 생활 III. 북부유럽 여러 나라의 생활 IV. 동부유럽 여러 나라의 생활 V. 남부유럽 여러 나라의 생활 VI. 아프리카 생활	VII. 캐나다와 알래스카 생활 VIII. 아메리카 합중국의 생활 IX.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의 생활 X. 남아메리카의 생활 XI. 양극지방
인문계 고등학교 지리 II (1968)	단원 1. 세계의 자연환경 단원 2. 세계의 인류 집단 단원 3. 아시아의 자연과 생활 단원 4. 유럽의 자연과 생활 단원 5. 아프리카의 자연과 생활	단원 6. 아메리카의 자연과 생활 단원 7. 오세아니아와 양극 지방의 자연과 생활 단원 8. 세계의 경제생활 단원 9. 세계와 우리
고등학교 세계지리 (1989)	I. 세계의 자연환경 II. 세계의 인문환경 III. 문순 아시아 IV. 건조 아시아와 아프리카	V. 유럽 VI.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 VII. 인류의 당면 문제
고등학교 세계지리 (1995)	I. 세계의 자연환경 II. 세계의 인문환경 III. 서태평양 연안 국가 IV. 동남 및 남부 아시아	V.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VI. 유럽 VII. 아메리카 및 양극 지방 VIII. 세계의 과제와 미래
고등학교 세계지리 (2002)	I. 세계와 지리 II. 우리와 가까운 국가들 III. 일찍 산업화된 국가들	IV. 지역 개발에 활기를 띠는 국가들 V. 사회주의 붕괴이후 변화를 겪는 국가들 VI. 세계의 과제
고등학교 세계지리 (2011)	I. 세계화와 지역 이해 II.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여행 III. 세계의 자연환경	IV. 세계화 시대의 경제활동 V. 세계화 시대의 인구와 도시 VI. 갈등과 공존의 세계

출처 : 최복현 등, 1950:1-3; 최홍준, 1968:3-7; 주경식 등, 1989:1-4; 형기주 등, 1995:1-4; 오기세 등, 2002:4-7; 권동희 등, 2011:4-6.

표 3. 「최신 먼나라 지리」 교과서에 포함된 프랑스 관련 내용

분류	내용
프랑스의 자연 (지형과 기후)	피레니즈(→피레네)산맥은 동서주하여 에스파니아와 경계 짓고, 알프스산맥은 이탈리아와 경계 짓고, 쥘라산맥은 알프스 산맥의 바깥쪽에 병행하며, 전반적으로 온난화 기후이다.
프랑스의 인문 (농·축업, 광업·공업)	기후가 온난하므로 농업이 발달하여 밀생산과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하며, 석탄과 철광 산출이 많고, 기계제조의 중공업이 성장하고, 무역은 세계 유수의 지위에 있다.
교통	도로, 철도, 운하, 항공교통(파리)과 해운(르아브르, 마르세이유)이 발달하다.
도시 (파리)	파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공업은 미술, 화장품이 발달
주민 (민족, 종교, 인구)	종교는 천주교, 프랑스어는 세계의 외국어, 일반문화가 발달되어 이름난 학자들이 많으며, 출생률이 미약하다.

출처 : 최복현 등, 1950:11-17.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던 1960년대의 국제 정세는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정치 등 여러 측면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68년 3월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II)이 개정 시행되면서 인문지리 학습에만 한정되었던 지리(II)를 세계지리 사례와 연관시키게 되었



그림 4. 시대별 교과서 속의 프랑스 이미지

* a) 프랑스의 농업지대, b) 프랑스의 철도, c) 밀을 수확하는 농민, d) 프랑스의 산업, e) 유럽의 농촌(프랑스), f) 르아르 자동차공장, g) 태양열 발전소, h) 파리중심의 재개발지역, i) 파리의 모습, j) 광우병으로 집단 폐사된 소떼, k) 소피아 안티폴리스, l) 프랑스 소효사태.

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절박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점을 다뤄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최흥준, 1968). 인문계 고등학교 지리 II(1968) 교과서에는 각국의 명칭과 면적, 인구와 밀도, 수도, 주요 수출품(예, 섬유제품과 철강, 기계, 화학품 등)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참고자료의 대부분은 농업, 공업, 산업 등 국가별 통계자료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는 등 한국경제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와 관련해서는, '단원 4. 유럽의 자연과 생활'에서 프랑스의 농업과 공업을 그들의 자연환경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으며(그림 4), '유럽 대륙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식민지 무역으로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그들은 하나와 같이 해외 식민지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식민지 무역으로 성장하고 있던 프랑스 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의 식민지 무역은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원료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식민지 무역을 통하

여 유럽의 경제변화를 견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세계지리(1989)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지리 영역은 풍부한 자원과 발달된 산업들,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배경, 도시와 인구 성장에 관한 내용을 주로 자연환경과 결부시켜 다루고 있다. 프랑스가 속한 유럽은 근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지리상의 발견 이래 생활권을 세계 각지로 확대시켰으며,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대륙으로서 유럽의 발전상과 더불어 유럽 공동체(EC)의 결성 및 유럽 통합의 관점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세계지리(1989) 교과서를 보면,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농목업 분야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로서 프랑스를 '유럽의 농촌'이라는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다(그림 4).

프랑스는 세계 제1의 포도 생산지로서 보르도(Bordeaux), 샹파뉴(Champagne) 지방이 그 중심지이며,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는 올리브, 오렌지, 무화과 등을 많이 가꾸

고, 또한 양과 젖소도 많이 사육한다.(…) 알사스(Alsace), 로렌(Lorraine) 지방은 세계 제 3위의 철광석 산지로 벨기에 국경에 가까운 탄전과 독일의 자아르(Saar) 탄전과 결합하여 국경 지역에 제철, 기계공업을 일으켰다.(…)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의 압제에서 벗어나 공화국을 수립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국은 대체로 안정되지 못한 편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열적이어서 격심한 정변과 혁명이 잦았고, 명량, 쾌활하며 평화를 사랑하므로 문학, 예술에 뛰어난 사람이 많다. 오늘날 프랑스는 ‘유럽인의 유럽’을 주장하여 미·소 양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 해외에 넓은 식민지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독립하여 프랑스 공동체(프랑스어권)를 구성하고 있다.(최흥준, 1968:120-12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소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 3의 경제권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EC를 결성하였다. 그 출발은 1948년의 베네룩스 관세 동맹이었지만, 이어 1951년에 이들 3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1957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결성하였다. 이들 3기구가 1967년에 EC로 통합되면서 공동체 내의 산업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하였을 뿐 아니라, 무역 또한 현저히 늘어나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굴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주경식 등, 1989:166)

위에 글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경제적 통합에 이어 정치적 통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EC는 동서관계(미·소 냉전)와 남북관계(선진공업국과 저개발국 간의 문제)의 축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세계지리(1995) 교과서는 최근 아시아 신흥공업 국가들의 급부상, 소련 및 유럽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 소련의 해체, 그리고 각 지역의 인종 간 분쟁 및 기근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개방화와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 유럽에 관한 내용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와 인구 노령화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게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변화하고 있는 세계와 인류가 당

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프랑스에 관한 내용은 해외 자원을 이용하여 발달된 제철, 정유, 섬유공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발달된 공업경제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 Paris의 발달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

프랑스의 최대의 철광 산지로, ... 루앙·뫼케르크·링 등은 북프랑스 공업지대로 해외 자원을 이용하여 제철·정유·섬유·기계 공업이 발달하였다. 로렌 지방은 메스와 낭시를 중심으로 알자스·로렌의 철광석과 피즈 및 모젤 운하를 통해 수입되는 독일의 석탄을 연료로 하여 철강·기계·화학 공업이 발달되었다. ... 프랑스의 파리 역시 1850년대에 도시 기반 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 재개발을 실시하였다. 도시 개발은 강력한 행정력과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완수되었고, 파리는 새로운 모습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였다.(형기주 등, 1995:245-248)

고등학교 세계지리(2002)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러 국가와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교류로 지구촌이 되어 가는 세계지리 학습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목차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단원과 중단원 내용은 경제와 국가 발전, 국가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을 소개하면서 영국은 도버해협을 관통하는 유로스타 사진이 소개되고, 프랑스는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독일은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의 사진이 등장한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공업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되어 삼포식 농업이 널리 보급되었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이 확산되고 있던 유럽의 상황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광우병 파동이 한 달이 넘도록 진정되지 않은 채, 광우병은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나라마다 육류 소비량이 격감하고,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오기세 등, 2002:107)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계 청년들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소외당하고 차별받아 온 이민자 출신 프랑스인들의 잠재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패한 이민자 통합 정책, 30%가 넘는 실업률과 낙후된 주거환경,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민자들의 반발로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소요사태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프랑스의 교외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자동차나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공격하는 형태를 띠었다(권동희 등, 2011: 178).

2011년도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는 세계지리 학습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고, 그들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이해하며, 지구촌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지역 간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미래 지향적인 세계 공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교과서에서는 일찍부터 발달된 서부유럽의 공업지역이 변화된 모습과 첨단기업이 입지해 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국제도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노동력의 국제이동과 이에 따른 주민 갈등, 다국적·다문화·다인종사회로 변화된 사회 환경은 2005년도 프랑스의 소요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그림 4). 이러한 내용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에도 결부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 교과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다룸으로써 세계사의 조류를 따라가면서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1891년에 집필된 세계지리 교과서 「사민필지」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프랑스는,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고등학교 세계지리 및 중학교 사회 교과서 및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양한 각도와 시선에서 풍부한 자료와 내용들로 소개되었다.

2. 북한 지리교과서 속의 프랑스

1945년 8월, 소련군정이 북한에 진주함에 따라, 소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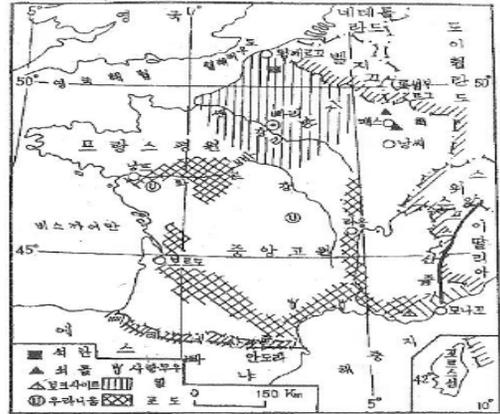


그림 5. 북한 교과서 속의 프랑스

출처 : 명용범, 2005:53.

식 사회주의 이념은 1948년 북한이 단독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북한정권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소련식 사회주의 교육을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체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소련의 통제 하에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위한 일련의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1945년 10월 '북조선학교 교육실시 조치법'을 제정하고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사회주의 교육을 도입(1945~1950.6)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적용되었던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정하였다(통일교육원, 2014). 그러나 1953년 이후, 한국전쟁이 종식되면서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북한의 지리 교육과정은 소련의 전통을 도입한 이래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북한의 지리 교육과정은 고등중학교⁶⁾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편제되었다. 1학년의 계통지리(자연지리 중심의 내용구성)로 시작하여 5학년의 계통지리(국토개발과 환경지리)로 끝난다. 그리고 2학년의 경우는 지역지리 내용을 계통적으로 접근하였고, 3, 4학년의 경우는 조선지리와 세계지리가 지역적 접근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전개되는 지평확대법에 근거하여 1단원에서는 항상 국토지리(한국지리)부터 다루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세계로부터 국토(조선지리)로 향하는 지평확대 역전모형에 따라 학습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관련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세계지리」에서 다루고 있으며, 목차는 (1) 아시아주, (2) 유럽주, (3) 아프리카주, (4) 북아메리카주, (5) 남아메리카주, (6) 오세안

주와 랑크지방으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제2장 서유럽주에서 소개된다. 동유럽 → 북유럽 → 서유럽 → 남유럽 순으로 국가를 나열하는 방식은 19세기 후반,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 「사민필지」에서 유럽주를 다뤘던 방식과 비슷하다. 내용전개 순서는 지형과 기후 → 농업·공업 경제 → 도시·교통 순으로 나열된다. 2005년에 간행된 중학교 3학년 세계지리 교과서(명웅범, 2005)의 프랑스 내용 역시 큰 변화 없이 자연환경과 지하자원, 그리고 산업생산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단락에서 문화에 대해 약간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내용 중에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서유럽 부분에서 소개되는 3개 국가(독일, 영국, 프랑스)중에 이 용어는 프랑스 관련 내용에서만 등장한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이웃나라'(p.10), 일본은 '군국주의'(p.14), 유럽에서 영국은 '자본주의 공업국가'(p.51), 프랑스는 '제국주의'(p.52), 아메리카에서 미국은 '제국주의'(p.105)로 표현되고 있다. 요컨대, 수교관계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⁷⁾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본과 프랑스, 미국에 대해서는 '군국주의, 제국주의' 등의 용어로 씌으로써 여전히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프랑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조선역사⁸⁾ 교과서에서 '침략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대외침략자', '제국주의', '전쟁 미치광이'라는 표현도 세계역사⁹⁾ 교과서에 이어, 지리교과서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유럽의 서부에 자리 잡고 있다. 북서부에 도버 해협과 영국 해협이 접해 있고, 서쪽에 비스카이만, 남쪽에 지중해가 있으며, 나머지는 육지로 여러 나라들과 잇닿아 있다. 지중해에 있는 코르시카 섬도 프랑스의 영토이다. 지형은 동남부가 높고 북서부가 낮다. 영토의 80%는 평원과 언덕들로 되어 있다. (...) 프랑스는 경제 부문에서 공업과 농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농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들 가운데서 비교적 큰 몫을 차지한다. 부침땅(→해의 식민지)은 영토의 60%를 차지한다. 프랑스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다.(명웅범, 2005:52)

중학교 3학년 지리교과서에서 프랑스에 대하여 먼저, 지형과 지하자원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하천과 운하를

관련지어 소개하고 있다. 지형 다음에는 기후를 설명하면서, '지역적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온대 해양성 기후'라고 제시하고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약해져 맑은 날이 많아진다. 겨울은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여름은 비교적 더우므로 여러 가지 농작물 재배에 유리함'을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농업 경제를 재차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파리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며, 인구가 많은 도시(215만 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파리는 이름난 관광지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생산의 중심지'라고 설명하고, 프랑스의 발전된 공업경제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을 기술하고 있는 한국의 교과서 기술방식과는 달리, 북한 교과서에서 프랑스 관련 내용은 매우 지엽적이고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에는 소비에트 연방정권이 붕괴되면서 동서의 냉전체제는 협력시대로 상황이 전환되었지만, 북한의 지리교육 내용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보다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간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은 2000년 12월에, 독일은 2001년 3월에 각각 북한과 국교관계를 체결하였다. 북한은 프랑스와의 수교를 원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자유아시아방송, 2009년 12월 16일).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프랑스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 민간기업과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조선의 날> 행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고(노동신문, 2007년 11월 13일), 2008년에도 프랑스에서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의장단회의>(노동신문, 2008년 4월 11일)가 개최되었다. 이어서, 2012년에는 파리에서 북한 은하수 공연이 있었고(노동신문, 2012년 3월 17일), 2013년에는 프랑스 실업계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노동신문, 2013년 10월 24일),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노동신문, 2013년 11월 17일)하는 등 프-조의 문화·경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국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이지만, 최근 두 나라의 움직임은 통해 미루어 볼 때, 향후 두 나라 간의 외교관계가 체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개화기에 저술된 세계지리 교과서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지리교과서에 포함된 프랑스 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지난 130여 년 동안 프랑스에 관한 이미지가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기별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프랑스의 이미지는 표 4와 같다.

19세기 후반, 근대 한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세계지리 교과서 「사민필지」는 당시 외국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던 한국의 학생들에게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사민필지에 기술된 프랑스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에 관한 정보는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았으며, 일제의 팽창주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에 관한 내용은 당시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독일에 비해 비호의적이면서도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제는 한반도로부터 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으로 인하여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사회와 경제, 민족과 문화, 교육까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았으며, 학교교육 또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였다. 즉,

표 4. 시기별 프랑스의 이미지 변천

시기	교과서 기술 관점 및 프랑스 이미지
1886~1904 (개화기)	교과서는 학생들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매개체이며, 당시 교과서에는 프랑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되었다.
1905~1945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부세계 기술. 일제강점기 교과서에 프랑스는 당시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에 비해 비호의적으로 다루졌다.
1945년~현재 (해방이후)	해방 이후, 남북한 지리교과서 속의 프랑스 이미지는 현저한 차이가 남. 즉,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프랑스를 여전히 제국주의와 냉전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청산하면서, 미국식 제도와 관점을 받아들였으며, 그러한 영향은 학교 교과과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한국은 경제부흥에 힘썼으며, 무엇보다도 산업혁명을 이뤘던 선진국의 경험을 교과서에 채택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기술되었으며, 프랑스의 공업화와 산업화에 관한 내용 또한 순차적으로 반영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프랑스에 관한 내용으로는 사회변화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실정에 맞춰 교육내용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과서에 반영된 프랑스의 이미지는 냉전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와 냉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개화기, 일제 강점기 및 해방이후 남북한 지리교과서 속의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정치체제나 국가이데올로기에 따라 전혀 다르게 표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註

- 1)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거나 사례지역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없으며, 다만 연구를 위한 사례 국가로서 프랑스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첫째, 국내 지리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비중이 적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둘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는 이념이나 정치체제의 차이에 따라 지리교과서에서 특정 국가의 이미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교과서에 일본과 우호적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분단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수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우방이면서 북한과는 미수교상태인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남과 북의 지리교과서에서 현저하게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 2) 「사민필지」의 저자인 헐버트는 1897년 한성사범학교 교장을, 1902년 관립중학교 교관을 지냈으며, 「한국사」(1905)와 「대한제국 멸망사」(1906)를 출간하였다.

- 3) 아라사국, 노웨쉬덴국, 덴막국, 덕국, 네데란스국, 벨지암국, 앵길리국, 블란사국, 이스바니아국, 포츨갈국, 쏫스란드국, 이다리아국, 오스트로헝게리국, 터키국, 루마니아국, 서비아국, 만트니그로국, 크리스국.
- 4) 청불전쟁이 평화조약(1885)으로 처리됨에 따라,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이후 1887년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차례로 프랑스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 5)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집필한 「사민필지」는 세계에 관한 정보를 지역지리 형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조선인 장지연의 「대한신지리」(1907)는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여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에 관한 내용을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역지리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교과서의 구성 특성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사민필지」가 집필되었던 때는 서구 열강들이 밀려들어 오던 상황으로서 세계지리 교육을 통해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세계정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 계몽적 측면이 강했다면, 「대한신지리」가 집필되었던 상황은 일제의 간섭과 강압이 본격화되던 상황이므로 국토지리(한국지리)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6)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는 한국의 중학교 3년 과정과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합한 것과 같다. 2014년도부터 고등중학교를 초급중학교 3년 과정과 고급중학교 3년 과정으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 7)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영국은 2000년 12월, 독일은 2001년 3월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북한은 유럽연합내 25개(프랑스와 에스토니아 제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통일교육원, 2014:96).
- 8) 1866년에 우리 인민은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격멸하고, 프랑스 침략자들의 대규모 침략을 물리쳤다. 이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한다(제갈명, 2002:69).
- 9) 나뵈레옹은 꼬르스섬의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군사교육을 마치고 군대에 복무하면서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 후, 1796년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프랑스 부르주아의 대외 침략전쟁은 전쟁미치광이 나뵈레옹의 이름과 결부되기 시작하였다(리성권 · 최창길, 2002:64).

참고문헌

- 권동희·권정화·안재섭·오정준·이승철·신광종·조지복·신승진, 2011,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천재교육.
- 김형래, 2000,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한 프랑스어 교과서 집필 지침의 특징과 문제점,” 프랑스어 문교육, 10, 15-34.
- 김형래·김희경, 2004,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 내용 분석,” 중등교육연구, 52(2), 561-589.
- 리성권·최창길, 2002, 「세계역사」(고등중3), 평양: 교육도서관출판사.
- 명용범, 2005, 「지리」(중학교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선미·우선영, 2009,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 제7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8(4), 19-34.
- 서숙희, 2011, “한국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과서의 변화양상,” 인문과학연구, 18, 98-113.
- 손용택, 2004, “남·북한 지리교과서 내용구성의 체제 탐색과 대북미관,” 국토지리, 38(3), 199-214.
- 송정희, 2003, “한국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과서의 변천,” 프랑스어문교육, 15, 49-72.
- 오기세·강병수·김재기·도정훈·송형세·옥한석, 2002,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대한교과서.
- 이송, 2014, “고등학교 프랑스어 I 교과서 분석,” 프랑스어문교육, 45, 99-122.
- 이찬, 1968, 「한국 문화사 대계 3 : 과학, 기술사」,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 정갑, 1949, 「이웃 나라 생활」, 서울: 을유문화사.
- 제갈명, 2002, 「조선역사」(고등중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朝鮮總督府, 1933, 「初等地理書 卷二(第五學年)」,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朝鮮總督府, 1944, 「初等地理書 卷二」(第六學年),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주경식·한균형·오경섭·류제현, 1989, 「고등학교 세계지리」, (주) 능력개발.
- 최복현·이지호·김상호, 1950, 「최신 먼나라 지리」, 서울: 과학문화사.
- 최홍준, 1968, 「인문계 고등학교 지리II」, 서울: 동아출판사.
- 통일교육원, 2014, 「북한 이해 2014」, 통일부.
- 하경수, 2006, “한국-프랑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비교 연구 -역사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연구,

13(1), 99-120.

헐버트(Hulbert, H.B.), 1891, 「사민필지(士民必知)」.
 형기주·장보웅·반용부·강영복, 1995,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 보진재.
 노동신문, 2007년 11월 13일자, “프랑스에서 <조선의 날>
 행사 진행”.
 노동신문, 2008년 4월 11일자,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
 한 국제연락위원회 의장단회의 프랑스에서 진행”.
 노동신문, 2012년 3월 17일자, “프랑스사람 들이 은하수
 라는 이름을 친근하게 부른다. 3.16일 은하수관현악
 단 빠리출발”.
 노동신문, 2013년 10월 24일자, “프랑스 실업계대표단 평
 양시내 여러 곳을 참관”.
 노동신문, 2013년 11월 17일자, “프랑스와 뽀르뚜갈을 방
 문하였던 조선로동당대표단 귀국”.
 자유아시아방송, 2009년 12월 16일자, “프랑스 ‘북한과 수

교는 점진적으로” <http://www.rfa.org>

교신 : 이상균,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
 딩 5층 동북아역사재단 (이메일: skyigeo@gmail.com)

Correspondence : Saangkyun Yi, 03739, 5F, Imgwang
 Bldg., 81 Tongil-ro, Seodaemun-gu, Seoul, Kore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mail: skyigeo@
 gmail.com)

투 고 일: 2016년 9월 8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9일
투고확정일: 2016년 10월 11일

